



즉시 배포용: 2018년 7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수혜자의 농산물 시장 이용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 발표

연방 정부의 무대응으로 인해 뉴욕 주민 280만 명이 SNAP 수당으로 농산물 시장에서 신선한 과일 및 야채를 구입할 수 없어

뉴욕주, NovoDia와 계약을 맺고 SNAP 수혜자가 뉴욕주 농산물 시장에 전자수당이체(Electronic benefit transfer, EBT) 혜택 이용 보장

해당 해결책으로 49개 주에서 농산물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SNAP 수당을 사용해 계속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것

뉴욕주에서 221,000건 이상의 거래로 약 340만 달러의 SNAP 수당이 사용되어 지역 농장에 혜택을 가져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와 뉴욕주 농산물 시장 연합(Farmers Market Federation of New York)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벤더인 Novo Dia Group과 협약을 맺고,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수혜자가 주 전역의 농산물 시장이 열리는 나머지 시즌 동안 계속해서 SNAP 수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달 초, Cuomo 주지사는 Sonny Perdue 미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장관에게 이 문제에 관해 연방 정부가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는 연방 정부의 무대응으로 인해 뉴욕 주민들이 식량을 빼앗기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Trump 행정부가 미국에서 가장 도움이 절실한 이들을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연방 정부가 시대에 뒤쳐진 기술을 사용하는 검증되지 않은 회사와 계약을 맺는 동안, 뉴욕주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한 주민뿐만 아니라 근면한 뉴욕주의 농부를 계속해서 보호할 것입니다.”

최근 미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는 농산물 시장을 위한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전자수당이체(SNAP EBT) 장비 및 서비스를 모바일, 셀룰러 기반 결제를 지원하지 않는 회사에 제공하는 신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 가정 수십만 가구가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산지 재배 과일 및 채소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정하는 처사입니다. 이를 대체할 기술이 없는데다 연방정부는 이러한 혼란을 예측하지 못했기에, 농부와 SNAP 수혜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USDA와 협력하여 농산물 시장에서 농산물 구매 시 SNAP 수당 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셀룰러 모바일 기술을 개발한 Novo Dia Group은 USDA의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없기에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USDA는 해당 문제에 영향을 받는 주정부에 이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관리 실수를 인정한 즉시, 뉴욕주 농산물 시장 연합(Farmers Market Federation of NY)은 이 문제에 영향을 받는 다른 주와 협력하여 해결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뉴욕주는 Novo Dia와 단기 계약을 맺고 SNAP 수혜자가 농산물 시장에서 농산물을 계속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가장 바쁜 성수기 동안 현지 농부에게 혜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USDA의 관리 실패를 거울 삼아, 뉴욕주 농업시장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 및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OTDA)은 보다 영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계약으로 농산물 시장 거래 시 셀룰러 기반 결제에 의존하는 다른 주들도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Novo Dia는 SNAP 수당 결제를 수용하는 1,700개 농산물 시장 및 농민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방 정부의 조치가 SNAP 수당에 의존하는 저소득층 개인 및 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방해하더라도, 뉴욕주의 주도로 인해 49개 주 및 워싱턴 DC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뉴욕주는 비정한 연방 정부로부터 주민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취한 이번 조치 덕분에 SNAP 수혜자들이 주 전역의 농산물 시장에서 구입한 신선하고 건강한 농산물을 계속해서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시 및 장애 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Samuel D. Roberts**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가장 취약한 주민에게 필수적입니다. SNAP 수혜자가 농산물 시장에서 수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농민과 개인 모두에게 윈-윈이 됩니다. 수혜자가 수당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신 주지사님과 그 리더십에 박수를 보냅니다.”

농업시장부(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Markets)의 Richard A. Ball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님의 신속한 조치 덕분에, 뉴욕주는 취약 가정이 전국 농산물 시장에서 계속해서 SNAP 수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민들이 고객을 만나고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 중요한 수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자수당이체 서비스에 의존하는 주민을 위해서 해당 서비스가 중단되는 그 어떠한 가능성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뉴욕주는 장기적 지역사회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OTDA, 뉴욕주 농산물 시장 연합(Farmers Market Federation of NY) 및 Novo Dia와 계속해서 협력할 것입니다.”

뉴욕주 농산물 시장 연합(Farmers Market Federation of NY) Diane Eggert 상임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Novo Dia Group의 서비스를 통해 SNAP 수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농산물 시장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저소득층 소비자는 신선하고 건강한 현지 재배 농산물을 소비할 수 없게 되고, 농가를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뉴욕주 농민의 판매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남은 농산물 시장 시즌 동안 Novo Dia Group을 지원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SNAP 수당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신 Cuomo 주지사님께서 박수를 보냅니다. 뉴욕주 파트너들과 이번 조치를 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신 전미 농산물 시장 영양보충 프로그램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s)에도 감사드립니다. Novo Dia Group의 이번 확장으로 모바일 마켓 플러스(Mobile Market Plus)를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게 될 것입니다.”

Josh Wiles Novo Dia Group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농산물 시장 연합(Farmers Market Federation of New York)과 뉴욕 주정부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정부의 지원 수준과 파트너십 체결의 신속함은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뉴욕주 농산물 시장뿐 아니라 전미 모바일 마켓+(Mobile Market+) 사용자 모두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미 농산물 시장 영양보충 프로그램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Farmers Market Nutrition Programs) Phil Blalock 상무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농부와 농산물 시장에 더없이 중요한 해당 기술을 계속 사용하기 위한 다음 조치를 수행 및 이행해 주신 주정부에 감사드립니다. 이는 소규모 농부를 지원하기 위한 파트너십이 어떻게 공고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향후 몇 개월 내에 지속 가능하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농산물 시장과 농민들은 이러한 서비스로 인해 지속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뉴욕주는 2002년부터 농산물 시장에서 SNAP 수혜자를 대상으로 전자수당이체(Electronic Benefits Transfer) 서비스를 시행하고 사용을 지원해 왔습니다. 뉴욕주는 지난해 243개 지역에서 221,051건의 거래, 340만 달러를 집행하여 뉴욕주 가정 약 60,000가구에 건강하고 영양가 높은 농산물을 제공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뉴욕주는 농산물 시장에서 SNAP 수당 사용을 확장 및 촉진하고 운영비를 절감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이제 뉴욕주 전역의 수많은 농산물 시장이 SNAP 수당을 수용합니다.
- 큰 성공을 거둔 FreshConnect Checks 프로그램 기금이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농산물 시장에서 SNAP 수당 5달러를 지출할 때마다, 수혜 가정의 구매력을 40% 증가시키는 인센티브 2달러를 제공합니다.
- 2014년 뉴욕주 농산물 시장은 효율성을 높이고 운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현재의 SNAP/EBT 결제 시스템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